

기독교적 관계발달과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개발

김 영 근 교수
(Ph.D., 부산장신대학교)

국문초록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결혼관계에서 출발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관계도 준비는 꼭 필요하다. 잘 준비된 결혼관계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초이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의 부부들은 결혼에 대해서 준비된 교육이 없이 결혼을 했다. 그 결과로서 많은 가정들이 이혼 등의 가정해체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결혼예비학교는 이러한 준비된 결혼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 결혼예비학교를 교회공동체내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본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개발을 개발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결혼관계를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이면서 동시에 인간발달 및 성장의 한 단계이다. 따라서 결혼준비단계를 신앙성장 및 인격발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준비단계에서 필요한 발달과정을 개인내적발달, 영적발달, 신앙적 발달, 성관계발달, 사회적 발달, 공동체발달 등의 6단계로 분류했다.

주제어 :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개발, 결혼준비교육, 발달과정, 집단상담.

I. 여는 글

본 연구는 교회 내 미혼 청년들로 하여금 성서적 결혼관을 확립하여 건강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우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가정의 붕괴와 해체이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로 나타나고 있다.¹⁾ 물질문명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였지만 결혼과 가정관계에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²⁾ 사이버공간(Cyberspace) 속에 익숙해진 새로운 세대의 삶의 환경은 가족공동체 중심보다는 극도의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의 삶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로 애정과 혈연, 윤리와 도덕, 규범과 질서, 그리고 신앙의 터전 위에서 있던 가정이 흔들거리기 시작했고 결혼의 숭고한 의미는 퇴색되며 부부관계는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인 교회 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혼기독교청년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들의 결혼생활은 슬픔과 갈등과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고 끝내 결혼생활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혼 젊은이들 사이에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고 결혼을 개인의 욕망과 유익을 찾는 도구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혼청년의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을 세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한다. 그들로 하여금 성서적 결혼관과 가정관을 확립하여 불행한 결혼을 예방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먼저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의 의미와 이 프로그램의 역사적 발달배경을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헌과 실제적 적용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본 연구는 교회실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혼예비학교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1) 결혼예비학교의 의미

본 연구자는 목회사역과 교수사역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미혼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⁴⁾ 이들이 겪고 있는 결혼과 연관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안의 미혼 청년들이 확고한 성서적 결혼관을 갖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결혼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잘 모르거나 혼돈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교회에서 미혼 청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이들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는 듣고 있지만 결혼에 대한 교육이나 성경공부를 체계적인 교육이나 성경공부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미혼기독교청년들은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성교육을 받았지만 성에 대한 이해가 성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

넷째, 미혼기독교청년들은 이성교제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교회 공동체 특성상 이들은 일반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자연스럽게 이성과 만나 교제하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원리를 교육받지 못해 신앙인에게 적합한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섯째, 교회 안의 미혼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갈등을 겪는다. 교회 내 미혼 청년들은 그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15)”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⁵⁾ 그러나 제한된 교회 내에서만 배우자를 찾고 만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교회 내에 결혼적령기에 해당되는 남녀성도의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여성청년들의 갈등은 더욱 심한 편이다.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미혼청년들 위한 도움을 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시도가 결혼예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결혼예비학교프로그램은 미혼기독교인들을 위한 기

독교공동체의 필요에 따른 결과물로 태생하게 되었다.

결혼준비교육이 시작된 배경은 첫째, 민주주의 이념 확장에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에 평등한 기회를 주어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가치에 대한 강력한 강조는 순응주의에 반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념은 문화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가정에까지 침투하였고, 모든 가족이 가부장적 제도의 호의적인 독재로부터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적인 가족생활로 발전해 가게 되었다. 이 결과로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이들 간에 결혼하는 예가 많아지게 되고 이 경우에 그들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관념과 기타 여러 가지 가정 일에 대하여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점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결혼준비교육에서 시도되었다.

결혼준비교육의 둘째 배경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현대사회의 이해와 태도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결혼은 사회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의미가 강조되고, 가문의 영속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행복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애정적 유대에 근거한 결혼관이 점차 강조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결과가 이혼관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이혼을 금기시 하여 이혼 당사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아왔으나 급격한 근대화,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되었다.⁶⁾ 이혼을 비극의 시초라고 생각하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의미를 부여하되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은 남편에 대한 종속, 존중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다. 통계는 취업한 부인들과 경제적 수입이 많은 부인들이 그렇지 못한 부인들보다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⁷⁾ 현대사회에서 성 의식의 변화도 뚜렷하다. 결혼생활의 적응이 성적 적응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적일치성이 클수록 부부간의 친밀도

가 높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결혼에 있어 성적인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되고 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변화에 직면한 현대사회는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직면하게 되었다. 20세기 중엽 이래 사회적 변화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결혼준비교육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부해체 즉 이혼은 부부 당사자뿐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 자녀들은 또한 성인이 되어 결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또 다른 결혼관계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갈등을 가진 부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되었다. 이러한 가정문제에 대해서 David R. Mace는 문제발생 전에 미리 예방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⁸⁾

Marriage Encounter 운동을 시작한 스페인의 Calvo 신부도 청소년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문제아들은 문제가정에서 시작되며, 문제가정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결혼생활 다시 말하면 질이 낮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비행청소년의 해결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있고 건강한 가정의 모체가 되는 건강한 부부는 준비된 결혼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준비된 결혼의 출발이 결혼준비교육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결혼준비교육은 기독교상담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왔다. 2차 대전 전에는 주로 상담과 심리학의 관점이 개인적이고 정신내적(intrapsychic)인 관점에 집중되어왔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인 50년대와 60년대에는 상담과 심리학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넓어짐에 따라 결혼 및 가족치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후 이 분야의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관계와 그 관계의 건강여부는 결혼당사자 개인들의 정신건강과는 별개인 다른 무엇과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결혼예비교육은 상담과 심리학의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결혼예비교육은 결혼준비를 위한 개인상담뿐만 아니

라 한 번에 다수를 교육과 훈련할 수 있는 집단상담적인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은 미혼청년들에게 교육적, 사회심리학적 인 면에서의 결혼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며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교육시키는 예방교육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결혼관계가 갈등관계로 파괴되는 것을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적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교회공동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현대사회의 요구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혼기독교청년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기초 위에 건강한 가정과 결혼관계를 세우도록 교회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결혼준비교육의 발달과정

미국사회에서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8년에 교육가들로부터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서였다. 대학의 젊은이들이 장래의 결혼을 위하여 도움을 청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십년 동안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에서 전문가들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일련의 강의를 시작했을 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입증된다. 당시 남자대학이었던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대학에서는 일단의 학생들이 그들의 결혼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교수로 임명해 달라는 솔직한 요구를 가지고 총장과 면담하였다. 결혼교육이 필수교양과목으로 이 대학에서 에른스트 그로브(Ernst Grove)에 의해서 1928년에 실시되었다.⁹⁾

그로부터 몇 년 후 헨리 보우먼(Henry Bowman)이 콜롬비아의 스티븐 단과대학에서 결혼준비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이들 두 강좌 외에도 단과대학 수준에서 결혼교육에 대한 강의의 패턴은 학점에 해당되지 않

는 결혼전문가들을 통한 특강형태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정식강좌로 발전하였고 결혼에 관련된 제반 학문분야로부터 초청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포지엄의 형태로도 발전하였다. 이 같은 일들은 결혼교육의 전문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게 했고 플로리다 주립대학(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는 결혼교육의 전문교사 훈련이 시작되었다. 미국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결혼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수천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결혼교육이 들어있게 되었다.

결혼과 가족의 존속을 위한 그로브즈 회의(Groves Conference)가 1930년 초에 개최되었고,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회의(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되었다. 이 두 조직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관심사인 보다 훌륭한 결혼교육과 결혼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훈련받은 전문적인 상담자의 배출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 결혼상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s of Marriage Counselor)가 결혼상담의 규범을 세우며 일반 대중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담자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2년 설립되었다.¹⁰⁾

미국 내의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은 교회공동체로 확대되었다. 교회들은 특히 교회연합회의 결혼과 가족위원회를 통하여 젊은이들의 데이트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이 구애와 약혼의 과정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자료들과 행사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교회협의회(NCC)와 가정생활위원회(The Department of Family Life)도 기독교인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 종파의 젊은이들 사이의 결혼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아갔다. 로마 가톨릭, 유대교 그리고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보다 훌륭한 결혼준비교육에 관심을 가진 종파의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결혼준비교육의 발달배경을 주로 미국사회에서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현재까지의 결혼준비교육 과정을 고찰해 보면 결혼준비교육의 프로그램은 일반사회와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일반사회

의 결혼준비교육은 결혼관계를 교육학적 관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기초로 발전시킨 반면에 교회공동체는 성서적 결혼관에 입각해서 발전시켜왔다.

3) 관련문헌 연구

미국사회에서 시작된 결혼준비교육은 한국 사회에서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결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결혼준비교육에 관해서 일반 교육학이나 사회학적인 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왔지만 여기에 비해서 한국사회에서의 결혼준비교육은 여러 연구기관과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¹¹⁾ 먼저 한국사회에서 발표되고 실시되는 결혼준비교육에 관계된 중요한 관련문헌들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하고자 한다.

김혜석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했다.¹²⁾ 그가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예비부부들로 하여금 원만한 부부 적응과정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즉, 결혼과 가정에 관련된 문제해결은 사후 치료적 방법보다는 예방적 방법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혜석은 결혼에 있어 가장을 중심으로 여러 식구가 함께 모여 살아왔던 제도적 가족에서 보다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인 우애적 가족에서 이혼, 별거 등의 부부 부적응의 가족해체가 더욱 많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김혜석은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①결혼의 준비도와 결혼생활의 중요 영역에서의 일치정도 및 스트레스 가능정도를 측정하기위한 조사도구, ②결혼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③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기술 등의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김혜석의 연구논문은 조사대상 집단을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사전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 집단과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조사결과를 다양하고 광범위한 쪽으로 유도해보다 정확한 근거를 도출해 낸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라 여겨진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전공의 박미경은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박미경의 연구목적은 예비부부의 관계향상을 돕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학습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박미경은 본 프로그램의 제목을 “아름다운 커플을 위한 관계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붙였고 2주간의 신청기간을 두고 부산시내 남녀커플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남녀 4쌍의 예비부부커플이 선정되었고 프로그램은 매 회 120분간 총 8회로 실시하며 프로그램 시작 전과 마지막 회를 마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¹³⁾

박미경의 논문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참가한 예비부부의 관계향상, 갈등해결, 성에 대한 태도 및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등한 역할, 의사소통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김혜정은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했다.¹⁴⁾ 김혜정의 연구목적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관계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감을 향상 시키며 결혼 후 일어날 수 있는 부부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생활의 적응과 만족을 높이는데 있다.

김혜정은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는 10쌍의 예비부부를 4주 동안의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각각 5쌍씩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은 한 주에 3회씩 매 회 120분 동안 실시하며 3주 동안 주말에만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켰고 프로그램 완료 후 두 집단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검사를 실

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의사소통과 커플 적응척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공감적 경청, 솔직한 감정표현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기대와 불일치를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부부적응에 효과를 보일 수 있고 결혼 안정성과 만족이 예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률은 기독교인 예비부부들의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¹⁵⁾ 김광률의 연구목적은 기독교인 예비부부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독교적 성숙의 세 가지 요소에 관한 것이었다. 즉 기독교적 정체감, 기독교적 친밀성, 기독교적 헌신에 근거한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독교적 성숙의 준거에 비추어 양적 및 질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기독교적 발달과업 과정에 대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성경적 교훈에서 그 발달과업을 찾아 적용하였다. 또한 이 발달과업은 각 개인의 생애주기와 가족생활 주기에서 찾아야 됨을 밝혔고 Erikson의 자아정체감발달이론과 Carter와 Mcgoldrik의 가족생활주기이론 그리고 기독교적 영성을 다룬 Walton과 Witmer와 Sweeney의 연구를 기초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은 집단경험적 접근법을 따라 집단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오윤자는 그 동안 유명주를 중심으로 개발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I』의 후속적 성격의 연구로서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¹⁶⁾ 오윤자의 연구동기는 현재 사회에 증가되는 이혼율과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역으로 생각해 보며 그 동안 사람들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기인되었다. 오윤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며 결혼준비 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하여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순환체계로 간주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결혼준비학교의 다섯 종류의 문헌은 결혼준비교육이 건강한 가정과 결혼관계를 위해서 필요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을 통하여 미리 준비된 결혼이 건강하다는 결론을 얻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은 그 내용은 차이점이 있지만 주로 인간관계훈련을 통한 대화의 증진 및 갈등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김광률의 문헌은 특히 발달과업을 통하여 예비부부가 성숙되면 건강한 결혼관계나 부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 결혼예비학교의 실제적 적용

그 동안 한국사회 안에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학에서는 전공과목이나 교양과목 안에 강의의 한 부분으로 결혼예비준비교육이 개설되었기는 하지만 교육학이나 상담심리학 또는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이론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은 약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사역단체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교회나 선교단체나 가정사역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이제 본 장에서는 결혼준비교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적용 사례들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그 대상은 기독교가정연구소의 결혼예비학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결혼예비학교, 사랑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결혼예비학교, 권성수교수의 신혼부부를 위한 가정생활 workshop, 기독교학술연구소의 결혼예비학교 등이다.

(1)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의 결혼예비학교

이 연구소의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은 7주로 진행된다. 결혼예비학교 교재로 사용되는 『하나님, 우리 결혼합니다.』의 내용은 첫째, 만남—로맨스의

선택, 둘째, 만남-데이트와 자아상, 셋째, 만남-결혼과 결혼설계도, 넷째, 만남-에로스와 순결, 다섯째, 만남-미션과 가족문화, 여섯째, 만남-결혼과 신혼, 일곱째, 만남-결혼갈무리로 되어있다.¹⁷⁾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혼청년들은 행복한 결혼과 부부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과마다 “생각을 모아, 마음을 열며, 미래를 펴라, 결혼 따라잡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적절한 유머와 쉽게 설명된 개념, OHP 자료의 활용, 적절한 적용 등이 탁월하고 특히 지도자를 위한 결혼예비학교 가이드북은 개 교회 지도자들의 지침서로 활용하기에 그 짜임새가 잘 되어 있다.¹⁸⁾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서적, 신학적 내용이 좀 더 깊이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

(2)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결혼예비학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결혼예비학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교육목표는 예비교육을 통해 온전한 결혼을 기대하는 것이다.¹⁹⁾ 이 프로그램은 1주-남녀의 차이, 2주-결혼의 성경적 원리, 3주-가정경제, 성경적 성과 순결, 4주-자아상의 치유, 5주-부부대화과 갈등해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방법은 강의와 그룹토의 및 비디오 교육이 병행되는데 1주 1회로 모여 8회 모임을 갖는다. 교재는 5주임에도 8회로 모이는 까닭은 오리엔테이션과 5주 후에 추구되는 결혼의 실제적 준비과정들, 이를테면 나와 배우자의 욕구프로파일, 가정경제생활, 부부십계명, 나누고 싶은 이야기, 결혼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한 지침들을 학습하기 위함이다. 위의 프로그램은 강의마다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반면 개 교회에서는 적용하기에 무리가 된다. 왜냐하면 강의마다 구성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사랑의 결혼준비교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다.²⁰⁾ 전체 4주간에 걸쳐서 1회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이 결혼준

비교육의 특징이 있다면 결혼을 전제하든지, 약혼 중에 있는 커플들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혼준비교육이라는데 강점이 있다. 또한 교회 안에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드문 현실 속에서 교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주목받을 만하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네 가지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데 첫째, 커플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재 관계를 평가해 보도록 돕기 위함이고, 둘째, 커플로 하여금 실제 결혼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셋째, 결혼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형성해 온 자세와 지식 중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주 안에서 건강한 또래그룹 형성을 통해 평생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트에서 결혼에 이르는 제반문제와 연관된 법적정보도 자세히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신혼여행, 자녀계획, 가정경제 생활 등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 결혼을 실감있게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평가된다.

(4) 신혼부부를 위한 가정생활 워크숍

권성수교수가 충신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청년들의 결혼관과 가정관이 크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이들을 위한 가정생활의 워크숍을 가졌고 이것을 정리해서 『청년과 신앙』이라는 책으로 발표했다. 이 워크숍은 세미나와 그룹토의를 통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과 가정생활의 원리를 정립하는 과정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제도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결혼은 사랑과 존경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삶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권성수의 워크숍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생활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숙지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네 종류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교육도

임은 집단교육 및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진행은 유명강사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예비부부들의 참여를 통한 구체적인 성장의 기회는 부족한 편이다. 그런데 교육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과 또한 성경적인 기초위에 교육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이 결혼의 중요한 성이나 가치에 대한 몇 번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에 거치지 않고 꾸준한 부부관계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건강한 결혼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김광률이 강조한 부부성숙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신앙성장이나 인격성장 등의 발달과업에 따른 강조점은 약한 면이 있다.

2.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개발목적

본 프로그램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독교예비 부부들에게 기독교적인 관계 발달을 통하여 교회실정에 맞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혼기독교청년들이 이성교제에서부터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준비시켜 건강한 가정을 세워줌으로 건설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본 프로그램의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적 결혼관에 대한 미혼기독교청년들의 바른 이해를 돕는다.

둘째, 미혼기독교청년들이 결혼예비교육을 통하여 전인적인 관점에서 성장 및 발달을 경험함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결혼관련 기독교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결단하게 한다.

2) 프로그램개발방향

결혼예비학교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프로그램의 현황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할 기독교인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예비학

교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전인적인 성장 및 발달에 강조점을 둔다.

둘째, 본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결혼의 의미가 이해되어야 하며 거기에 따른 예비부부의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교회 안에서 실시할 때에 나눔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운영은 집단상담의 형태를 취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집단상담은 개인상담보다 폭넓게 취급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상호 감정과 관심사를 터놓고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외적인 비난과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행동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¹⁾

3) 프로그램구성

지금까지 결혼예비학교의 역사적 배경 및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관련문헌과 실제적인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연구했다. 본 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1970년 들어 결혼준비의 “예방 및 교육”이란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다.²²⁾ 즉 1970년대의 결혼생활의 성숙화운동(marriage enrichment movement)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중시하는 예방적인 운동으로 강조되면서 이 운동의 철학이 결혼준비에도 이어졌다.²³⁾ 따라서 결혼준비에서 촉진적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결혼준비는 상담에 의한 “치료 및 회복”이란 측면보다 교육에 의한 “예방 및 교육”이란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접근방법으로 전화하게 되었다.

Clinebell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생산적인 결혼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발달시키는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떠나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가능한지의 관심으로 초점을 옮김으로 예방적 모

텔을 갖도록 돕는 일을 강조했다.²⁴⁾

김광률은 기독교인 예비부부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독교적 성숙을 강조했는데 기독교적인 성숙은 기독교인의 발달과업에 따른 기독교적 정체감, 기독교적 친밀성, 기독교적 헌신의 향상에 근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독교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된 후에 예비부부들의 기독교적 성숙에 도움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²⁵⁾

이러한 예비부부들의 신앙인격과 영적성숙을 위한 결혼예비교육의 프로그램으로서 김광률의 기독교적인 발달과업에 따른 결혼준비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이다. 또한 Clinebell의 성장관점에 따른 결혼예비교육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광률의 발달과업에 따른 결혼예비프로그램과 Clinebell의 성장관점에 기초해서 교회내의 미혼청년들의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성장 및 인격발달에 기초를 두어 총 8회기의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김광률의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예비부부의 상처치유와 성생활문제를 보완해서 관계발달적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었다. 김광률의 결혼예비프로그램은 총 7회기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1회기를 확장해서 총 8회기다.

관계 발달적 단계를 제시하면 첫째는 개인내적 발달단계, 둘째는 신앙 발달단계, 셋째는 영적 발달단계, 넷째는 성관계적 발달단계, 다섯째는 사회적 발달단계, 여섯째는 공동체 발달단계 등이다.

제 1회기: 오리엔테이션

1회기는 예비부부소개하기, 설문지작성하기, 집단규칙정하기, 과정에 대한 기대 나누기 등을 하면서 서로간의 긴장과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과제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작성해오는 것이 주어진다.

제 2회기: 건강한 자아상

2회기는 개인내적발달단계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건강한 자아상이 확립되어야 부부관계의 관계도 건강해진다. 이 모임에서는 1회기에 주어진 과제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글을 나누면서 자아상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한다.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었던 환경과 사람과 직면하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상에 관계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제 3회기: 언약과 결혼

3회기는 신앙발달단계로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결혼을 접근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성서적인 결혼관을 숙지한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비(非)기독교인들의 결혼과는 분명한 차별성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결혼에 있어서 언약의 가치를 예비부부들끼리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언약으로서 결혼이해는 꼭 필요한 영적 혼숫감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제 4회기: 영적인 친밀성과 이성교제

4회기는 영적발달단계로 영적인 친밀성의 가치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교제는 정서적인 육체적인 교제도 꼭 필요하지만 영적인 친밀성이 주는 기쁨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비부부끼리 Q.T.(말씀묵상)와 기도의 생활의 실제로 나누고 그 가치를 나누도록 한다. 함께 Q.T.와 기도생활의 계획도 나누도록 한다. 영적인 친밀함이 없이 부부관계가 진행될 때의 위험도 나누도록 한다.

제 5회기: 성(性)과 성(聖)

5회기는 성관계적발달단계로서 혼인관계에서 성생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부부사이의 성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며 부부들끼리의 노력으로 통해서 부부사이의 친밀성이 배가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이 단계에는 성에 대한 성서적인 의미를 공부한다(창1:26-2:25; 레18; 20장; 잠5:15-19; 고전7:1-5). 예비부부들끼리 자신들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은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한다. 혼인관계에서 성적인 순결성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 6회기: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법

6회기는 사회적발달단계로서 부부사이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부부가 서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대화법에 대해서 나누게 한다. 지금까지의 분노처리의 방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면서 나 메시지를 연습하도록 한다. 매듭풀기의 게임을 통해서 갈등해결의 묘미를 체득하도록 한다.

제 7회기: 낭만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7회기는 공동체발달단계로서 부부사이의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연애기간은 주로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단계이다. 이 낭만적인 사랑에는 헌신이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결혼생활은 서로에게 헌신이 요구된다. 많은 신혼가정이 파탄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생활을 연애의 연장선상에서 낭만적인 사랑에서 머물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낭만적인 사랑에서 사랑을 주는 헌신의 단계가 결혼생활을 성숙시킨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성장한 가정의 부모세대의 사랑의 유형을 나누게 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큰 헌신이 필요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쁨과 가치를 나누게 한다.

제 8회기: 마무리, 결혼생활의 성공을 결단하면서

8회기는 마무리단계로서 그 동안의 7단계 모임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 동안 발달적 관점에서 진행된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한 점을 서로 나눈다. 설문지를 통해서 그 동안의 성장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한다. 함께 참여했던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3.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의 실제

제 1과: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

- 1) 참여자들이 서로를 소개함으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킨다.
- 2) 프로그램의 성격 및 목적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목표를 정한다.
- 3) 설문지를 통해서 결혼준비를 위한 개인적인 성숙도를 확인한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긴장을 풀고 친밀감을 도모한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우리는 모두 결혼준비를 위해서 모였다. 모든 일의 시작 전에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결혼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준비된 결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집단모임 형태로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서로를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참여자들은 결혼예비학교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의 결혼준비를 향한 지적, 감성적, 영적, 사회적 성숙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몇 가지의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성숙도를 파악하게 된다.

4. 활동

- 참가자 소개
- 집단규칙 정하기
- 설문지 작성
- 과정을 통한 목표 나누기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6. 과제물 안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 적어오기

제 2과: 건강한 자아상

학습목표

- 1) 왜곡된 자아상을 발견한다.
- 2)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한 상처와 열등감을 알게 한다.
- 3)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한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 자신을 향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메뚜기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않는가? 내 자신에 대한 건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한 왜곡된 자아상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화는 가능하다.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받기도 사랑하기도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격려하자.

4. 활동

-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적어온 글 나누기
 -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었던 환경과 사람 직면하기
 - 왜곡된 자아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 용서하기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6. 과제물 안내: “기독교적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오기

제 3과: 언약과 결혼

학습목표

- 1) 현대 젊은이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 2) 언약으로서의 기독교적 결혼관을 이해한다.
- 3)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에 임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필종부라는 전통의 윤리에 묶여 있어서 여성들은 자의에 의해서는 결코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의 안정성이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러한 전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쉽게 가정을 버린다. 그 결과는 가정의 파괴다.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와 배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4. 활동

- “기독교적인 결혼의 의미”에 준비해 온 생각을 나누자.
- 결혼관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할 때에 결혼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인가를 나누자.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 1) 6. 과제물 안내: 『프란시스 & 에디스 웨퍼의 결혼이야기』²⁶⁾ 읽어오기

제 4과: 영적인 친밀성과 이성교제

학습목표

- 1) 이성교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아본다.
- 2) 영적인 친밀성의 의미를 파악한다.
- 3) 영적친밀성을 가진 이성교제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남성과 여성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친숙한 만남이 계속되면 만남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친밀감이 더해진다. 육체적인 친밀감은 대개의 경우 육체적인 탐닉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육체적인 탐닉은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때에 영적인 친밀성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이성교제가 발전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 영성적인 친밀성은 모든 관계를 주님의 섭리아래에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다. 영적인 친밀성의 가치를 알아가고 이 바탕위에 남녀의 교제가 진행되면 그 결과는 더욱 풍성하다.

4. 활동

- 『프란시스 & 에디스 웨퍼의 결혼이야기』을 읽은 소감을 서로 나누자.
- 정서적인 친밀성과 영적인 친밀성에 관한 예비부부들의 경험을 나눈다.
- 영적인 친밀성의 성장 없이 육체적인 친밀성만이 형성되었을 때의 위험 요소에 관해서 나눈다.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6. 과제물 안내: 김종철의 저서인 『거룩한 성(性)에 성공하자』²⁷⁾ 읽어오기

제 5과: 성(性)과 성(聖)

학습목표

- 1) 성(性)대한 성서적 의미를 발견한다.
- 2) 결혼과 부부생활에 있어서 성(性)의 순결을 지키도록 한다.
- 3) 성적상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혼탁한 성문화는 오늘날 사회의 한 모습이다. 남녀간의 교제도 쉽게 육체적인 친밀감이 더해지면서 혼적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사회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 결혼 밖의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시기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의 교제는 혼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다. 이것은 결혼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간다. 결혼 전에는 예비부부는 성생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성적인 생활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며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성생활은 결혼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4. 활동

- 『성스러운 성에 성공하자』의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나누자
- 부부생활에서 성생활의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자.
- 성에 대한 지나친 가졌던 거부감, 수치감, 죄책감 등에 대한 글로 표현한다.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6. 과제물 안내: “나의 인간관계의 갈등대처” 에 대해서 생각해 오기

제 6과: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법

학습목표

- 1) 대화를 통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 2) 예비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의 정서와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 3) 대화의 건설적인 기능과 파괴적인 기능을 숙지한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대화와 사랑의 관계’는 피와 몸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피가 잘 순환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마찬가지로 대화가 잘 진행되어야 사랑의 관계는 성숙되고 깊어진다. 그런데 대화는 건설적인 대화도 있고 파괴적인 대화도 있다. 잠언에서는 잘 표현된 말을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했다. 그만큼 시기적절한 말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부부사이의 건강한 대화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잘 훈련되어야 이것은 가능하다. 종종 사람들은 어려운 관계를 건설적인 대화가 아닌 파괴적인 대화를 해서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적인 대화법, 이것은 예비부부들이 결혼 전에 꼭 숙지해야 하는 것이다.

4. 활동

- 준비해온 “나의 인간관계의 갈등대처”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눈다.
- 예비부부끼리 서로의 대화의 패턴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한다.
- 나 메시지 연습하기
- ‘매듭풀기’ 게임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6. 과제물 안내: “낭만적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의 차이점 알아오기

제 7과: 낭만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학습목표

- 1) 낭만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의 차이를 이해한다.
- 2) 헌신이 없는 부부관계는 깊은 관계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한다.
- 3) 기독교인에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 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게 한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낭만적인 사랑에는 의무나 책임이 필요 없고 관계를 즐기면 된다. 결혼 전에는 낭만적인 사랑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낭만적인 사랑의 단계에서 의지적인 사랑의 단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때부터 부부관계는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사랑을 주는 단계로 성숙해져야 한다. 자기탐닉에서 자기초월로 바뀌어야 한다. 이 때부터 가정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헌신만이 강요되고 오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오락도 유효하다. 헌신은 무조건인 희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의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헌신은 항상 기쁨을 수반한다. 헌신의 단계를 지속하면 관계는 더욱 성숙되고 부부관계에 기쁨과 감사는 더욱 넘치게 된다.

4. 활동

- 준비해온 “낭만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 서로가 성장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나눠보자.
- 낭만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6. 과제물 안내: 지난 7회 모임에 대한 짚막한 소감을 준비한다.

제 8과: 마무리, “결혼생활의 성공을 결단하면서”

학습목표

- 1) 설문지로 그 동안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상태를 점검해 본다.
- 2) 예비부부가 이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한다.
- 3)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간의 기독교적인 성장을 도왔던 배우자와 다른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1. 친교: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눈다.

2. 찬양 및 한 쌍의 예비부부가 기도한다.

3. 강의

우리는 지난 7회기 동안 결혼예비학교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목적은 예비부부의 신앙인격과 헌신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서로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앙인격과 헌신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위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그것은 새로운 성장을 향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결혼이란 항구를 떠나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항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배의 선원은 부부이다. 그리고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다. 나침반은 성경말씀이다. 이제 결혼생활은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나침반에 성경에 근거해서 멋진 항해를 출발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선장의 인도함을 받고 나침반의 방향제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면 성공이다.

4. 활동

- 설문지를 통해서 자신의 성숙 점검하기

- 예비부부가 함께 결혼의 일정표 만들기
 - 다른 참여자들과 예비배우자에게 사랑의 마음 표현하기
5. 경험의 나눔과 정리
 6. 실행을 위한 결단기록하기

III. 닫는 글

본 연구를 통하여 교회 내 미혼청년들에게 있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성교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훈련을 통해서 성서적 결혼관 위에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는데 좋은 지침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독교인 예비부부들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준비하도록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인 결혼관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결혼생활에 꼭 필요한 기독교인의 자아정체성, 건강한 대화법, 성생활의 성공, 헌신을 통한 성숙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년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던 훈련자들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성교제에도 자신감을 얻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적용의 단계는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작성만 완성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얻은 결론을 근거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신학적 성찰과 성경적인 접근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성찰과 성

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하였기에 참여자들의 독특성과 고유성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하는 예비부부들의 특성과 요구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유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두 배우자가 모두 기독교인 전제 아래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차후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기독교인 경우도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 좀 더 프로그램을 세분했으면 더 유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광률. “기독교인 결혼준비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교육학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
- 김양희 · 이형실.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사, 2001.
- 김중철. 『성스러운 성에 성공하자』. 서울: 도서출판 건생, 1999.
- 김혜석.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박미경.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7.
- 박윤선. 『성경주석』. 서울: 영음사, 1981.
- 송길원 · 김향숙. 『하나님 우리 결혼합니다』. 서울: 기가연, 2000.
- 오윤자.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관 계학회지 제 6권 1호, 2001.
- 이정덕 외 4인.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8.
- 이정우. 『현대가족과 가족문화』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 쉐퍼, 에디스, 정숙희 역, 『프란시스 & 에디스 쉐퍼 결혼이야기』. 서울: 에스라서원, 2001.
- Clinebell, Howard Jr. *Growth Counseling for Marriage*. Philadelphia: Fortress, 1975.
- Mace, David. *Prevention in Family Servic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83.

메이스, D. & 메이스, V. 차혜숙 · 차호원 역, 『행복한 결혼생활의 프로그램』. 서울: 기독교문사, 1986

Oates, W.E. & Wrowatt, G. *Before You Marry Them*. Nashville: Broadman Press, 1975.

[후주]

- 1) 송길원 · 김향숙, 『하나님, 우리 결혼합니다』(서울: 기가연, 2000), 13.
- 2) 이정덕 외 4인, 『결혼과 가족의 이해』(서울: 학지사, 1998), 34.
- 3) 김양희 · 이형실, 『결혼과 가족』(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1), 142.
- 4) 본 연구자는 1983년에 교육전도사로 교회청년부를 지도를 시작한 후에 2008년 5월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역교회 목회자로 사역했고 1995년부터 2008년 5월 현재까지 13년 이상 신학대학교와 일반대학교에서 기독교상담학 교수로 사역을 해왔다.
- 5) 박운선, 『성경주석』(서울: 영음사, 1981), 369-372.
- 6) 이정우, 『현대결혼과 가족문화』(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231.
- 7) 이정우, 232.
- 8) David Mace, *Prevention in Family Servic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83), 15-25.
- 9) 김혜석,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35.
- 10) 김혜석, 36.
- 11) 박미경,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85-86.
- 12) 김혜석, np.
- 13) 박미경, 12-13.
- 14) 김혜정,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상담심리석사 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np.
- 15) 김광률, “기독교인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 np.
- 16) 오윤자,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한국가족관계 학회지, 제 6권 1호(2001): 109-135.
- 17) 송길원 · 김향숙, np.
- 18) 송길원 · 김향숙, 『결혼예비학교 지도자 가이드북』(서울: 기가연, 2000), np.
- 19)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편집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결혼예비학교』(서울: 두란노, 2001), np.

- 20) 사랑의 교회 가정사역부, 『사랑의 결혼준비 교실』(서울: 사랑의 교회, 2001), np.
- 21) 이형득, “자기성장 집단상담의 단계적 발달과정”, 『집단상담연구 창간호』 (1998); 35-37.
- 22) W.E. Oates & G. Wrowatt, *Before You Marry Them* (Nashville: Broadman Press, 1975), 173.
- 23) D. 메이스와 V. 메이스, 차혜숙 · 차호원 역, 『행복한 결혼생활의 프로그램』(기독교 교문사, 1986), 173-189.
- 24) Howard Clinebell Jr., *Growth Counseling for Marriage* (Philadelphia: Fortress, 1975), 20-25.
- 25) 김광률, 256-258.
- 26) 에디스 웨퍼, 정숙희 역, 『프란시스 & 에디스 웨퍼 결혼이야기』(서울: 에스라 서원, 2001), np.
- 27) 김종철, 『성스러운 성에 성공하자』(서울: 도서출판 건생, 1999), np.

【 Abstract 】

A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 Training Program
On the Basis of Human Development in Christianity

Kim Young-Keun
(Ph.D., Busa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ducate and train premarital couples in church. This research was to prevent the conflicts of marriage relationship through group counselling by giving them inner healing, spiritual development, sexual understanding, empathic conversation training, and enhancing commitment. The whole program is composed of eight sessions by two hours and one session contains, physical activities, praise, prayers, lectures, demonstrations, presentations and sharing experience. Each program has more concrete contents as follows: the first session is for orientation and self-introduction; second session is for affirmative self-image; the third session is for understanding Christian marriage; the fourth session is for spiritual intimacy; the fifth session is for preparing healthy sexual life; the sixth session is for learning conflicts solving techniques through conversation; the seventh session is for the building of helping relationship; the eighth session is summarizing.

Key word: premarital education, training program, group counseling, prevent, marriage relationship